

4분의 1로 몸값 '뚝'... 컬리, IPO 재추진 '걸림돌'

2021년 프리IPO 투자 땀 4조 기업가치... 현재는 1조 일각선 증시 호황에 네이버와 제휴... 상장 호기 판단 김슬아 대표 남편 강제추행 사건, 악재로 부상 우려

한때 기업가치 4조 원을 인정받으며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던 컬리를 둘러싸고 상장 재도전 가능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 흐름에도 프리IPO 당시보다 크게 낮아진 기업가치가 상장 추진의 최대 부담 요인이라는 데에는 업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현재 내부적으로 상장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컬리는 2021년 말 25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 파트너스가 투자에 참여했고, 기업가치는

약 4조 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적자가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자 2022년 초 상장을 연기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컬리의 경영 지표는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컬리는 지난해 3분기 연결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IPO의 주요 걸림돌로 꼽혔던 재무 구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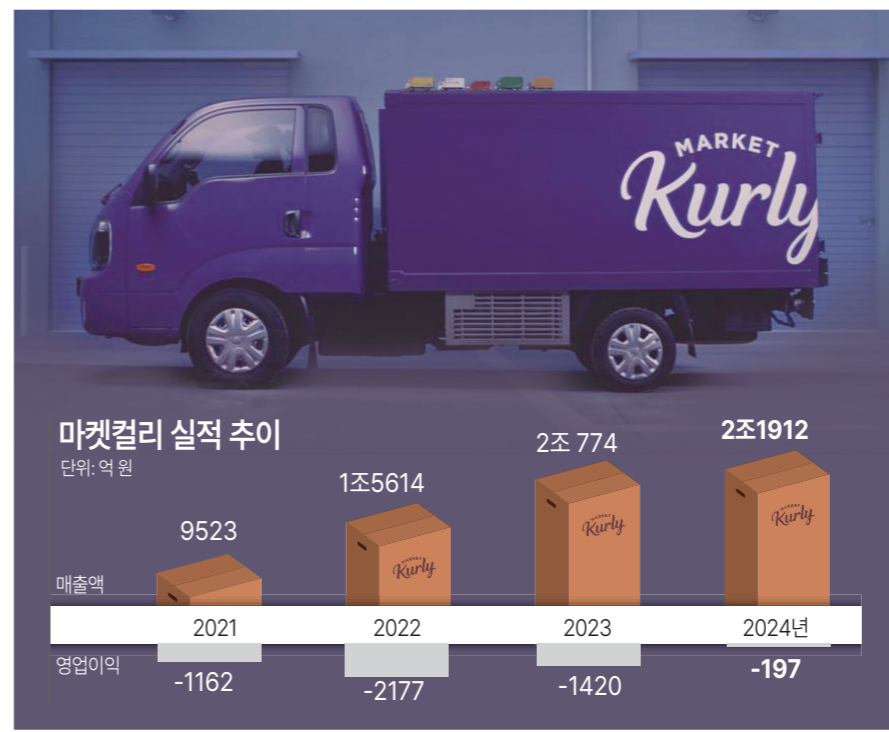
아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상장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가치 하락이 거론된다.

IB 업계 안팎에서는 컬리의 현재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프리IPO 당시 인정받았던 4조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2023년 진행된 유상증자 당시에도 기업가치는 약 2조6750억 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증시 환경과 전략적 제휴 효과를 감안할 때 컬리가 상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네이버가 컬리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쿠팡을 둘러싼 이슈 이후 컬리가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컬리가 지난해부터 영업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사업 영역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

이라며 “증시 흐름과 실적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과 관련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2022년 1월 상장을 연기한 이후 현재까지 회사 차원에서 상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후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배우자이자 관계사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영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국민 55% “올해 소비 확대”...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인다

한경협, 2026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물가 환율 최대 리스크... 세금·부채도 불안 소비여력 부족 41.2%... 충분 응답의 약 5배

2026년 국민 절반 이상이 올해 소비지출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심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가계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8%가 올해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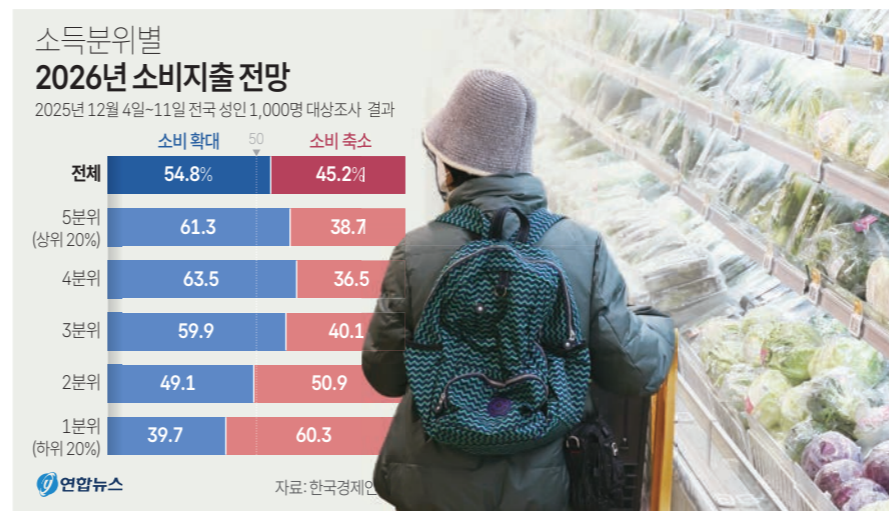
소비 전망은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아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

득 수준에 따라 20%씩 나는 지표로, 1분위가 최저, 5분위가 최고 소득층을 의미한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들은 주요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변화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기대(13.8%)를 꼽았다. 반면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들은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경협은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은 분기별로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소비활동의 최대 리스크로는 고환



율·고물가가 지속(44.1%)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부채 및 금융 불안(12.1%) 등이 소비를 제약할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53.3%가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여의치 않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1.2%에 달한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소

비 여력이 부족한 가구들은 부업·아르바이트(34.0%)나 예적금 해지(27.4%) 등을 통해 추가 여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지출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거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유통 규제 개선을 통한 구조 혁신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한화 주주환원 정책 호평

개인주주 간담회 개최

한화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주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표한 인적 분할의 목적과 향후 기업 비전 및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한화 이사회에서 결의한 인적 분할에 대한 개인 주주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해 주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개인 투자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는 이번 간담회 이후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화는 인적 분할의 핵심 목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았다. 존속 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군별 전략 및 투자 최적화로 시장 재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상운 한화 IR담당 전무는 “복합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분할을 통해 자회사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 보통주 전량 소각 4562억 원 (2026년 1월 13일 증가 기준)
- 보통주 약 445만주 즉시 소각
- 보통주 최소 DPS 1000원
- 2026년부터 base를 1000원 이상으로 올림
- 구형 유상주 전량 매입 및 소각
- 주주 권익 보호 약속 실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는 간담회에서 주주 환원정책 확대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직원 성과보상분 제외 자사주 445만주 전량 소각과 최소 주당 배당금(DPS) 1000원(보통주 기준) 설정 등 인적 분할 발표 당시 내뱉던 주주 환원정책 실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향후 자회사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배당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인적 분할과 주주 환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인적 분할이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지주회사 활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연달아 나왔고 한화의 주가도 발표 당일 25% 이상 급등하는 등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라라의 랩소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